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소요비용 차이에 관한 연구

서문희¹⁾

요약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유아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부담하는 비용도 많았다. 사교육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은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았다.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으로 설명력은 15% 정도이다. 이외 모취업, 도시거주, 학력 변수가 개인 단위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가구단위로 보면 영유아수와 모취업이 비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다.

주제어: 유아교육, 보육, 이용률, 비용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선진국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후 일찍부터 부모의 빈곤 등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빈곤은 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과 관심의 결여, 문화 결손 및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빈곤아동이 가정에서 방치되면, 이는 지능의 저하와 학습곤란으로 이어지고,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 산만, 불안 등의 정서장애 발생률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높다. 성인초기 학교실패, 실업 가능성, 만성적 복지의존성, 무기력감과 절망감 등이 모두 빈곤과 연결된다고 보고된다(노혁, 2002). 아동 어리고 빈곤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은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정책, 보육정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초기 정책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점차 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의 대상이 확대·변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1960~1974년 사이의 여러 국가들이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아동 부양과 관련한 조세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각국이 출산력,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가족수당제도의 개혁 등이 추진되었다(Gauthier, 1996). 특히 198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일정한 수준의 출산력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정책이라는 용어의 확산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으로 근로자와 동시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으로 부모 소득에 의한 아동의 보육 및 교육기회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²⁾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소요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부모 소득계층,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 변수를 선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등 사회경제적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고, 보육서비스 이용등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소득계층, 어머니의 학력 및 직종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2) 제1차 육아지원방안인 「새싹플랜」, 제1차 고령사회저출산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으로 201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 소득계층, 어머니의 학력 및 직종 등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아동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 소득계층, 어머니의 학력 및 직종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 유치원 등 개별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비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 소득계층, 어머니의 학력 및 직종 등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개별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검토

보육 및 유아교육분야에서 집단간 격차 관련 연구로 소득계층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빈곤, 자활계층 등 저소득층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보육 실태를 다루어 왔고, 보육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2001년도에 2000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소득수준이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및 학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소득수준별 영아와 유아 육아기관 이용비용 규모 및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을 분석하였다(서문희 외, 2001). 또한 2004년에는 부모의 소득계층별 보육료 부담 정도를 검토하고 소득계층별 보육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 2003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 구조화된 분석들에 의한 정책 검토, 외국의 차등보육료 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등의 방법으로 현 보육료의 산출 근거 및 새로운 산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차등보육료 확대 실시 모형을 개발하여 모형별 장단점을 제시하고 소요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서문희 외, 2004).

유아교육분야에서는 1997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제5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의 선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구 증감률, 노령화 지수, 시설 수용률 등과 연계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 지역을 유아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연구를 실시하였다(나정 외, 2001). 2003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나정 등(2004)

은 서울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영유아 부모 면접 실태조사, 유아의 일과 관찰 조사, 외국 저소득층 지역복지사업 파악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의 가정환경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파악, 저소득층 지역 유아의 일과와 부모의 자녀 교육실태 파악, 저소득층 지역 보육·교육기관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일반지역 및 저소득지역의 유아 일과를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재택 등(2004)도 부산지역 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영유아의 교육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 외에 이혜영 등(2002)이 저소득지역의 교육복지 욕구 조사의 일부분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시간운영과 교육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구분 없이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로, 박기백 등(2005)은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가구를 소득 10분위별로 비용지출 가구 영유아의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등 4가지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차이를 분석한바 있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이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표본조사구에서 11,7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³⁾인데, 이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3) 2004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200년 인구 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 중 200개 표본조사구에 거주하는 11,71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3,560 가구 이었고 이 중에서 94.6%에 해당하는 3,369 가구 및 여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 5,474 명에 대한 보육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로 표본은 전국 대표성을 가짐. 이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표본지역 요도와 가구명부를 확보한 후에 전문 조사원이 구조화된 조사표를 가지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아동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⁴⁾

2. 사용변수

본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수는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비용이고, 독립변수는 가구의 소득수준, 부모의 사회적 특성, 거주지역 등이다. 복지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은 두 시점간의 소비와 재산권의 가치변동, 즉 소비와 경제력의 순 증가분의 합이라고 정의된다(이정우, 1997). 보다 실질적으로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의미한다(통계청, 2002). 본 분석에서는 소득 조사 자료의 한계 상⁵⁾,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였다.⁶⁾ 소득인정액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나 보육료·교육비 차등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⁷⁾

〈표 1〉 소득분위별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및 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소득인정 분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본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92.2	150.7	197.4	241.7	291.3	355.6	424.6	533.5	726.3	-	-
본 가구 평균소득	80.6	133.1	170.0	199.0	223.8	256.1	288.4	342.2	404.8	557.1	271.9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경상소득	75.1	139.3	180.0	213.5	246.5	282.7	326.1	379.4	457.1	673.6	297.4

자료: 통계청, KOSIS.

여성부,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 4) 분석 자료의 조사시점이 2004년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2004년 이후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용, 특히 이용비용의 절대값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5)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이 일정한 소득수준(예를 들어 200만원, 250만원 등)에 집중 분포되어 10분위 구분이 어려움.
- 6)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소득: 귀택의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각종 정부 보조금, 친지·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004년 예상되는 연 소득을 추정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 주십시오.
 자산: 200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귀택의 재산(동산, 소유/점유 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와 농축산물 등)은 얼마나 되는지요? (※ 재산 산정 시 부채를 감안하여 계산)
- 7)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text{소득} + ((\text{재산추정액} - 3000\text{만원공제}) * 0.0417/3)\text{임}$.

<표 1>은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소득인정액 10분위 상한액과 각 분위별 평균 소득, 그리고 2004년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근로자 소득 10분위별 평균 경상소득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본 조사가구의 평균소득이 다소 낮다. 이는 본 자료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통계청 조사 대상 가구보다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모의 학력 변수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이하 대학, 4년제이상 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모의 취업 및 직종변수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노무직,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서의 집단간 차이 및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변량분석과 OLS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용 차이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아동 1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서비스는 보육교육기관, 특기보습학원, 개별그룹방문지도·학습지(이하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보육교육기관은 유치원, 보육시설, 반일제이상 학원⁸⁾과 선교원이 포함되고, 특기보습학원은 단순한 특기와 보습을 위한 학원, 방문지도·학습지는 개별 및 그룹지도를 모두 포함하고, 개인양육지원은 혈연 및 비혈연

8) 반일제이상 학원은 미술학원, 영어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처럼 주중에 매일 아침부터 오전, 또는 오후까지 이용하는 유사 보육교육기관으로, 예체능 등 교습 기능에 한정된 학원과 구분하여 조사되었음.

에 의한 비공식 영역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였다.

가. 소득계층별 차이

1) 이용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서비스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득기준 10분위로 이용률을 비교하면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에서는 48~67%에 분포하며 소득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는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보습학원은 2.7~19.7%, 방문지도·학습지는 12.0~41.0%로 소득계층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개인양육지원은 3분위가 최저이고 그 전후로 높아지는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

〈표 2〉 전체 및 취업모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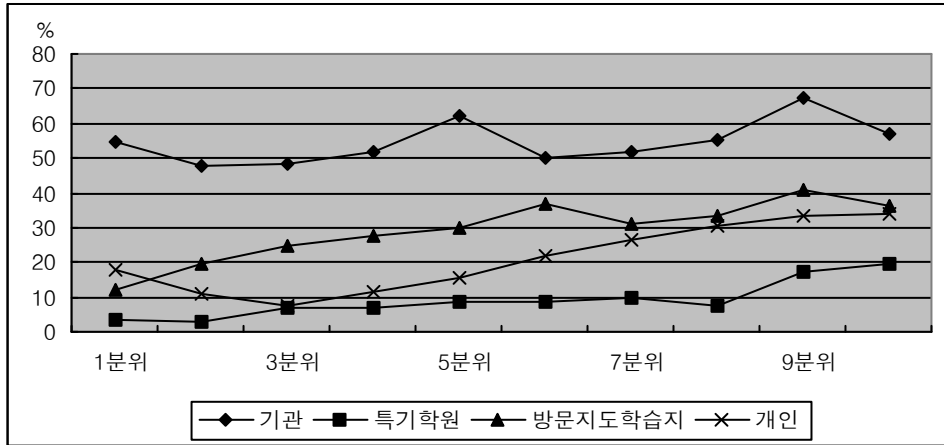
구분	전체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전 체	54.1	8.7	29.6	20.2	(2,961)
1분위	54.5	3.4	12.0	17.9	(233)
2분위	47.8	2.7	19.5	10.8	(335)
3분위	48.2	6.8	24.8	7.5	(307)
4분위	51.6	6.7	27.6	11.5	(312)
5분위	61.9	8.7	30.0	15.7	(310)
6분위	50.3	8.5	37.1	21.6	(342)
7분위	51.8	9.7	30.9	26.3	(278)
8분위	55.0	7.6	33.6	30.3	(289)
9분위	67.2	17.2	41.0	33.6	(244)
10분위	56.9	19.7	36.2	34.2	(218)
$\chi^2(d=9)$	38.4**	82.7**	87.1**	151.5**	-
10분위/1분위	1.0	5.8	3.0	1.9	-

주: **p < .01, #는 10분위/2분위임.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

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각각 19.7%, 3.4%로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각각 36.2%, 12.0%로 3.0배, 개인양육지원은 각각 34.2%, 17.9%로 1.9배로 10분위의 이용 비율이 높다(표 2, 그림 1 참조).



[그림 1] 영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다음으로 취업모의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하여 방문지도·학습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낸다. 특히 개인양육지원은 전체 20.2%, 취업모 48.1%로 2배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취업모 서비스 이용률의 소득분위별 차이는 소득순위별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육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하위 10% 집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특기보습학원 4.9배, 방문지도·학습지 6.6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4.1배이다(표 2 참조).

<표 3>은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소득분위별 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유아는 4개 유형의 서비스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특기보습학원 5.7배, 방문지도·학습지 3.1배이다. 영아는 보육교육기관과 방문지도·학습지는 분위별로 일관성은 없고 개인양육지원은 1분위가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분위 대비 10분위의 비율이 방문지도·학습지 3.4배, 개인양육지원 2.6배로, 상하위 10%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 체	12.1	9.2	23.4	(1,171)	81.7	14.4	42.9	18.2	(1,790)
1분위	21.6	4.6	16.4	(87)	74.5	5.5	15.9	18.9	(145)
2분위	6.5	3.6	8.0	(138)	76.6	4.6	31.0	12.8	(197)
3분위	7.7	7.7	6.4	(130)	78.0	11.9	37.3	8.3	(177)
4분위	7.7	6.2	9.4	(129)	83.0	11.5	42.9	13.1	(182)
5분위	22.0	10.1	17.9	(108)	83.6	13.4	40.8	14.5	(201)
6분위	8.8	18.2	25.8	(147)	81.4	14.4	51.5	18.4	(195)
7분위	9.2	7.3	33.3	(109)	79.3	16.0	46.5	21.6	(164)
8분위	13.0	9.6	40.4	(14)	82.8	12.6	49.7	24.2	(174)
9분위	25.8	12.4	50.0	(89)	91.0	26.9	57.1	24.7	(155)
10분위	9.6	15.7	42.9	(82)	85.9	31.1	49.6	29.2	(135)
$\chi^2(df=9)$	44.0**	28.5**	137.9**	-	21.9**	78.9**	82.8**	42.9**	-
10분위/1분위	0.4	3.4	2.6	-	1.2	5.7	3.1	1.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73,500원, 10분위 279,9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8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8.6%로 다소 높고, 그 이외는 분위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지출 대비 비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표 4 참조).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비용이 1분위 18,000원, 9분위 266,000원으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10분위의 비용도 1분위의 11.0배가 된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도 대체로 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낸다. 유아의 비용은 1분위 107,000원, 10분위 329,600원으로 10분위가 1분위의 3.1배이다. 소득 대비 비율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모두 1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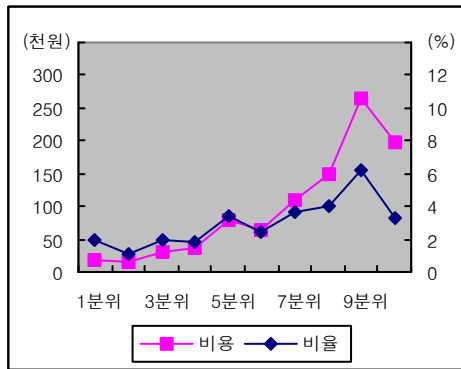
〈표 4〉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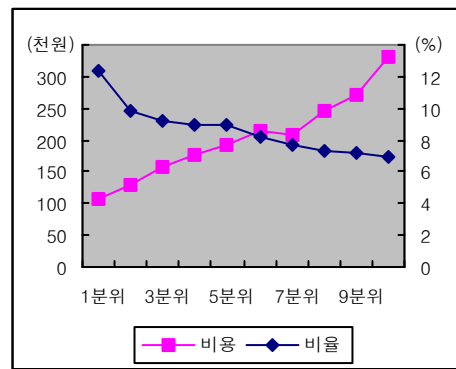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 대비 비율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평균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표준편차	174.8	7.5	9.9	180.8	5.4	8.9	155.9	7.8	9.5
1분위	73.5	8.6	7.8	18.0	1.9	1.6	107.0	12.4	11.6
2분위	81.6	6.2	6.7	16.1	1.1	1.3	127.9	9.9	10.6
3분위	103.3	6.1	7.2	30.5	1.9	2.4	157.0	9.2	10.8
4분위	119.2	6.0	7.7	37.1	1.8	2.3	177.4	9.0	11.4
5분위	152.9	7.0	9.3	79.2	3.4	5.0	192.6	9.0	11.6
6분위	149.3	5.7	8.3	63.1	2.4	3.7	214.9	8.2	11.7
7분위	170.5	6.1	8.6	109.8	3.7	5.1	209.5	7.7	10.9
8분위	206.3	6.0	10.1	147.7	4.0	7.5	244.8	7.3	11.7
9분위	270.0	6.9	11.1	266.0	6.2	10.1	272.2	7.2	11.7
10분위	279.9	5.6	10.2	198.8	3.3	7.8	329.6	7.0	11.6
F	51.8**	3.3	5.8	27.4**	8.5**	13.3**	33.0**	6.7**	0.4
10분위/1분위	3.8	0.7	1.3	11.0	1.7	4.9	3.1	0.6	1.0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유아〉

[그림 2] 전체 영아 및 유아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다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소득과 소요되는 비용의 관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별 육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격차를 보면 유아보다 영아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영유아 전체는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유아보다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표 5 참조).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인데,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보면 차이가 있다. 유아에서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에 따른 비용도 많아지고 동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영아의 경우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지출 대비 비율은 영유아 전체와 유아의 1분위가 각각 13.9%, 15.0%로 다소 높고 이외는 대체로 12% 수준이다.

〈표 5〉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지불아동 소득계층별 지출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표준편차	165.4	7.3	9.5	221.5	6.2	10.7	147.2	7.6	9.1
1분위	130.0	14.7	13.9	80.6	7.9	7.3	138.6	15.9	15.0
2분위	153.8	11.8	12.7	141.2	9.9	11.3	155.1	12.0	12.8
3분위	179.3	10.6	12.5	182.9	11.4	14.6	178.8	10.4	12.3
4분위	202.0	10.2	13.0	186.4	9.0	11.8	204.5	10.3	13.2
5분위	208.2	9.5	12.7	193.9	8.3	12.2	211.7	9.9	12.8
6분위	222.3	8.5	12.3	174.2	6.6	10.3	236.9	9.1	12.9
7분위	249.7	9.0	12.6	294.6	10.0	13.6	237.5	8.7	12.3
8분위	263.7	7.6	12.8	293.0	8.0	14.8	253.7	7.5	12.2
9분위	324.2	8.2	13.3	421.8	9.8	15.9	287.0	7.6	12.3
10분위	357.9	7.2	13.0	369.5	6.1	14.4	353.8	7.5	12.5
F	38.9**	15.4**	0.4	11.4**	2.8**	2.1*	29.2**	15.5**	1.0
10분위/ 1분위	2.8	0.5	0.9	4.6	0.8	2.0	2.6	0.5	0.8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나. 학력별 차이

1) 이용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 보면 영아는 기관이나 개별적 교육 이용에서는 모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개인양육지원에서 모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용률이 높아진다. 특히 개인양육지원의 경우 모의 학력은 중학 이하가 이용률이 9.4%인데 비하여 대학원 이상은 66.7%로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의 7.1배이다.

유아의 경우는 기관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교육 영역인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등에서는 중학이하가 그 이상 학력보다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학원 이상은 대학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는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표 6 참조). 그러나 대학원 이상과 중학이하의 학력을 비교하면 기관 이외에는 전자가 후자의 2.7~3.0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 6〉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교육 기관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보육교육 기관	특기보습 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전체	12.1	9.2	2.7	(1,172)	81.7	14.4	42.9	19.8	(1,792)
중학 이하	7.5	5.1	9.4	(39)	87.9	6.3	16.4	15.5	(40)
고등학교	12.8	9.6	17.5	(602)	81.1	12.3	42.3	14.6	(102)
전문대	12.5	8.3	24.4	(192)	77.9	13.3	52.5	23.8	(193)
대학	11.0	9.6	31.2	(301)	85.4	23.9	48.1	16.9	(301)
대학원 이상	11.1	8.3	66.7	(36)	77.8	18.5	44.4	42.9	(36)
$\chi^2(df=4)$	1.5	1.2	62.8**	-	7.7	40.5**	31.4**	26.4**	-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1.5	1.6	7.1	-	0.9	3.0	2.7	2.8	-

주: ** p<.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서비스 이용비용은 모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전체 아동의 경우 비용은 중학 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이 3.4배, 영아 17.2배, 유아 2.5배로 나타났다. 비용의 소득 대

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영아에서만 모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아 모의 대학원 이상 학력과 중학이하 학력을 비교하면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 1.1%, 대학원 이상 6.9%이고, 비용의 가구 월 평균 지출 대비 비율은 각각 1.1%, 12.2%이다(표 7 참조).

〈표 7〉 전체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중학 이하	90.7	5.7	6.8	17.0	1.1	1.1	134.2	8.2	10.1
고등학교	136.0	6.3	8.2	56.0	2.1	3.3	181.5	8.7	11.0
전문대	162.7	6.3	8.9	96.8	3.1	5.0	215.5	8.9	12.0
대학	205.3	6.4	9.4	140.6	3.9	6.2	262.0	8.5	12.3
대학원 이상	311.2	8.2	12.4	292.1	6.9	12.2	336.6	10.0	12.7
F	35.7**	1.2	5.3**	26.2**	11.9**	14.5**	27.2**	0.3	1.9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3.4	1.4	1.8	17.2	6.3	11.1	2.5	1.2	1.3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8〉 비용 지불 영유아 모 학력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비용	소득대비 비율	지출대비 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중학 이하	152.3	9.3	11.3	143.6	8.9	9.4	153.0	9.3	11.5
고등학교	205.0	9.5	12.3	196.8	7.5	11.5	206.5	9.9	12.5
전문대	245.9	9.5	13.4	266.1	8.5	13.8	239.3	9.9	13.3
대학	298.4	9.2	13.7	339.4	9.4	15.0	282.3	9.2	13.2
대학원 이상	417.5	11.0	16.6	474.4	11.2	19.7	366.6	10.9	13.9
F	47.4**	0.7	4.3**	14.6**	3.0*	4.3**	26.7**	0.7	1.0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2.7	1.2	1.5	3.3	1.3	2.1	2.4	1.2	1.2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 모 학력이 높아 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의 비용이 전체는 2.7배, 영아 3.3배, 유아 2.4배로 나타났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영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는 서비스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가 8.9%인데 대학원 이상은 11.2%로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 학력자의 1.3배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중학이하가 9.4%인데 대학원 이상은 19.7%로 2.1배이다(표 8 참조).

다. 모의 취업 및 직종별 차이

1) 이용

<표 9>는 모의 취업 및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차이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은 취업모가 높는데 취업 모 중에서도 생산노무직이 82.7%로 매우 높다. 직업상 지위가 높을수록 기관 이용률이 낮다. 그러나 그 이외 3가지 유형의 서비스는 생산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낮다. 관리전문직 자녀의 이용률은 생산노무직의 1.3~2.4배이다. 개인양육지원이 2.4배이고, 특기보습학원이 1.8배이다. 한편 미취업모를 비교하면 보육교육기관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은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률이 낮지만, 방문지도·학습지는 미취업모 아동의 이용비율이 오히려 높다.

<표 9>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특기보습 학원	방문지도 학습지	개인양육 지원	(수)
전체	54.1	8.7	29.6	20.9	(2,957)
관리전문직	55.9	12.2	28.5	60.0	(263)
사무직	65.3	10.2	27.6	62.8	(196)
서비스판매	73.7	11.0	29.9	42.3	(364)
생산노무직	82.7	6.7	22.1	25.2	(163)
무직(주부)	48.9	7.8	31.0	5.9	(1,918)
$\chi^2(df=4)$	171.8**	9.8*	6.7	859.6**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7	1.8	1.3	2.4	-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10>에서는 영유아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아는 직업상 전문성이 높을수록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낮고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 이용 비율이 높음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의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의 이용률은 각각 3.5배, 1.9배이다. 유아의 경우는 보육교육기관 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나 개인양육지원에서는 직업상 전문성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의 이용률은 1.6~2.8배이다.

<표 10> 영아와 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교육 기관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보육 교육 기관	특기 보습 학원	방문 지도 학습지	개인 양육 지원	(수)
전체	12.1	9.2	2.7	(1,172)	81.7	14.4	42.9	41.1	(1,790)
관리전문직	16.9	12.6	78.4	(119)	88.2	22.1	41.7	45.1	(144)
사무직	26.0	10.4	77.2	(77)	89.9	16.0	38.7	53.3	(119)
서비스판매	37.3	3.6	61.6	(84)	84.4	14.2	37.6	36.9	(280)
생산노무직	40.0	-	42.3	(25)	90.5	8.0	26.1	21.7	(137)
무직(주부)	6.7	9.5	8.2	(866)	78.0	14.0	48.8	4.1	(1,052)
$\chi^2(d=4)$	109.8**	7.5	502.6**	-	27.6**	11.8*	34.1**	403.9**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4	3.5	1.9	-	1.0	2.8	1.6	2.1	-

주: * p<.05, ** p<.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전체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의 모 학력별 집단간 격차의 차이를 보면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모두 관리전문직을 가진 모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이 생산노무직의 1.7~8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은 집단간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전업주부와 비교하면 관리전문직이 전업주부 비용의 2.8배로 비용을 더 소 요한다. 영아의 경우, 관리전문직을 가진 모의 비용이 전업주부의 비율의 13.8배인 데 반해, 유아는 1.7배로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비용의 가구소득 대

비 비율은 관리전문직 8.2%, 전업주부 5.2%인데, 영아는 각각이 7.8%, 1.1%로 차이가 크고 유아는 모두 8.5%로 차이가 거의 없다(표 11 참조).

〈표 11〉 전체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2,961)			영아(수=1,171)			유아(수=1,790)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157.6	6.4	8.7	90.6	2.9	4.5	201.4	8.7	11.4
관리전문직	309.5	8.2	13.3	325.3	7.8	14.4	296.6	8.5	12.4
사무직	305.2	8.8	14.6	324.9	8.5	15.2	292.4	9.0	14.2
서비스판매	217.9	8.6	11.7	203.0	7.5	10.6	222.4	8.9	12.1
생산노무직	169.9	9.0	11.1	188.3	7.2	11.6	166.5	9.3	11.1
무직(주부)	109.2	5.2	6.5	23.6	1.1	1.4	179.5	8.5	10.8
<i>F</i>	160.0**	35.8**	72.7**	208.9**	127.3**	164.2**	33.9**	0.4	4.6**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8	0.9	1.2	1.7	1.1	1.2	1.8	0.9	1.1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12〉 비용 지불 영유아 모 직종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985)			영아(수=393)			유아(수=1,592)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235.0	9.6	12.9	269.6	8.5	13.5	226.4	9.8	12.8
관리전문직	350.5	9.3	15.1	412.4	9.9	18.3	308.8	8.9	12.9
사무직	333.3	9.6	15.9	394.5	10.3	18.4	299.7	9.2	14.6
서비스판매	248.9	9.8	13.4	294.6	10.9	15.4	238.8	9.5	12.9
생산노무직	193.5	10.2	12.7	282.0	10.8	17.4	181.6	10.1	12.1
무직(주부)	196.2	9.3	11.8	196.8	5.9	7.6	208.5	9.9	12.5
<i>F</i>	69.5**	0.7	12.0**	46.3**	14.4**	27.2**	26.1**	0.8	1.6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1.8	0.9	1.2	1.5	0.9	1.1	1.7	0.9	1.1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모의 직업특성간의 차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에 더 의미있다고 하겠다. <표 12>를 보면 전체 아동의 관리전문직 육아지원비용은 생산노무직의 1.8배, 영아 1.5배, 유아 1.7배로 모 취업특성별 격차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 수준은 전체 아동에서 나타난 차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비용지불아동 비용의 소득 대비 비율은 생산노무직이 10%를 넘는 수준이지만 직종간 유의한 차이는 아니고, 지출 대비 비율은 관리전문직이 15.1%, 생산노무직 12.7%, 무직 11.8%로 관리전문직이 생산노무직의 1.2배 정도로 직종간의 차이를 보였다.

2. 부모의 특성이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분석한 변수들이 영유아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드는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차(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득분위, 영유아수, 모의 취업여부, 거주지역, 학력을 사용하였다. 모의 취업여부와 거주지는 각각 취업과 도시거주를 1로 하여 더미화하였고, 학력변수도 중, 고,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 각각을 더미화하였다.

<표 13>은 아동 1인당 총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서는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유의하여 5개의 모형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최종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동 1인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모취업, 도시거주, 모 대학원이상 학력, 모 4년제대 학력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누적 Adjusted R² 값은 소득분위가 0.153, 여기에 모취업이 포함되면 0.186으로 증가하고 거주지, 학력변수가 포함되어 0.215로 증가하였다.

<표 13> 영유아 육아지원비용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 ²
(상수)	65.33(8.92)**		
소득분위	17.51(1.31)**	0.29	0.153
모 취업	59.34(6.62)**	0.18	0.186
도시거주	38.75(7.49)**	0.11	0.198
모 대학원이상	119.81(21.14)**	0.12	0.208
모 4년제대학	34.67(8.08)**	0.09	0.215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학 변수임.

<표 14>는 소득 대비 비용 비율에 대한 최종 모형 분석결과인데, 이를 보면 9개 독립변수 중 5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동당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 10분위이고 다음이 도시거주, 모 대학원 이상 학력, 모 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이다. 이들 5개 변수의 비용에 대한 설명력 0.215에 비하여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다. 누적 R^2 조정치가 소득분위는 0.055이고, 거주지, 모 대학원 이상, 모 취업, 모 4년제대학 변수가 포함되어 0.08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변수는 종속변수가 비용인 분석에 포함된 유의한 변수와 동일하다.

<표 14>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2
(상수)	12.53(0.60)		
소득분위	-0.76(0.06)**	-0.30	0.055
도시거주	1.91(0.35)**	0.12	0.071
모 대학원이상	3.10(0.98)**	0.07	0.074
모 취업	0.84(0.31)**	0.06	0.077
모 4년제대	0.95(0.37)**	0.06	0.081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학 변수임.

다음으로 <표 15>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에 들어간 9개 독립변수 중 단지 2개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용에 모취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이 도시거주이다. 그러나 이 두 변수의 Adjusted R^2 값은 0.021에 불과하다. 앞에서 유의하게 분석된 학력 및 소득분위는 비용의 지출 대비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육아지원비용의 가구지출 대비 비율에 대한 순차 다중회귀분석 최종모형

구분	B(Std. Error)	Beta	누적 Adjusted R^2
(상수)	10.32(0.43)		
모 취업	2.12(0.41)**	0.12	0.013
도시거주	1.93(0.46)**	0.09	0.021

주: ** $p < .01$, 제외된 변수는 영유아수, 소득분위, 고등학교, 중학이하, 3년제대, 4년제대, 대학원이상 변수임.

3. 개별 육아지원기관 유형별 이용 및 비용 차이

앞에서는 아동 1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살펴보았다. 육아지원서비스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어서 여기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를 보육교육기관별로 부모의 제 특성별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의 전체 이용 비율은 48~67%에 분포하며 소득수준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4개 서비스를 각각으로 구분하여 이용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계층, 지역, 모 학력, 모 직종 변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각 변수별 차이로 살펴본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소득계층별 차이

1)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선교원 등 4개 기관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별 이용비율은 <표 16>과 같고, <표 17>에서는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은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와 9, 10분위를 비교하면 이용률의 차이가 13%p 정도로 9, 10분위가 두드러지게 높고, 소득수준별 일관된 차이를 나타낸다.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2.4배이다. 반일제이상학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1분위의 비율이 가장 낮아서, 10분위 이용률은 1분위의 1.7배이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일관된 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반면에 선교원은 2, 3분위가 2%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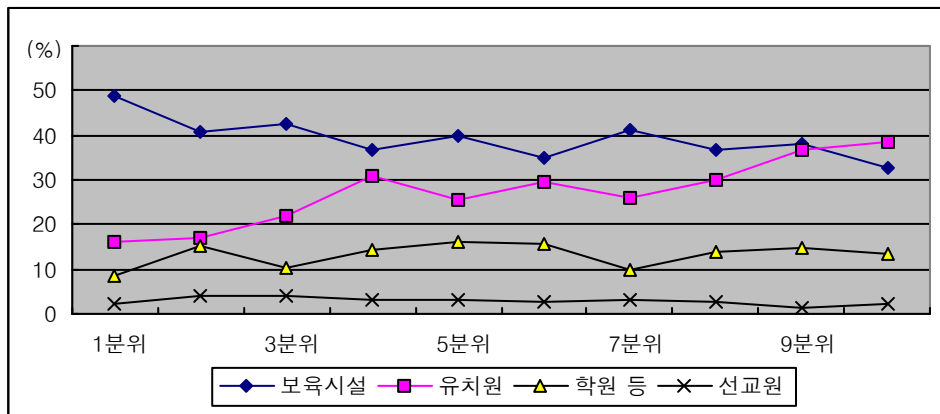
〈표 16〉 영유아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중복응답): 2004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1분위	37.5	9.9	5.2	2.2	(232)
2분위	26.6	9.9	9.0	2.4	(355)
3분위	27.4	12.7	5.9	2.6	(307)
4분위	24.4	18.3	8.3	1.9	(312)
5분위	33.0	16.5	11.0	1.9	(309)
6분위	24.0	16.7	8.8	1.5	(342)
7분위	28.4	16.2	6.1	1.8	(278)
8분위	26.3	18.0	8.7	2.1	(289)
9분위	33.2	23.4	9.4	1.2	(244)
10분위	23.4	23.9	8.7	1.4	(218)
$\chi^2(df=9)$	25.3**	39.7**	2.6	10.9**	-
10분위/1분위	0.6	2.4	1.7	0.6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1, 5, 9분위에서 매우 높은 양상으로 나타나서 소득수준과 이용간의 일관된 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유아는 소득 10분위별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은 낮아지고, 유치원 이용은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분위와 10분위를 비교하면 보육시설은 10분위가 1분위보다 16.2%p가 낮고, 유치원은 12.6%p가 높아서 10분위가 1분위의 2.4배이다.

유아와는 달리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소득분위별로 일관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유아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면에 영아의 경우 취업모 등 보육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기관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9.1	27.2	13.4	2.9	(1,790)
1분위	19.3	(88)	48.6	15.9	8.3	2.1	(145)
2분위	6.5	(138)	40.6	16.8	15.2	4.1	(197)
3분위	7.7	(130)	42.4	22.0	10.2	4.0	(176)
4분위	6.2	(129)	36.8	30.8	14.2	3.3	(183)
5분위	20.4	(108)	39.8	25.4	15.9	3.0	(201)
6분위	8.8	(147)	35.1	29.4	15.5	2.6	(194)
7분위	8.2	(101)	41.2	26.0	10.0	3.0	(169)
8분위	11.3	(115)	36.6	29.9	13.8	2.9	(174)
9분위	24.7	(89)	38.1	36.8	14.8	1.3	(156)
10분위	8.4	(83)	32.6	38.5	13.3	2.2	(135)
$\chi^2(df=9)$	40.7**	-	115	415**	9.3	3.9	-
10분위/1분위	0.4	-	0.7	2.4	1.6	1.0	-

주: ** p<.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표 18>, <그림 4>는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과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영아는 기관이용비용이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2.2배로 매우 크지만 분위에 따라 이용률이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대비 비율과 지출 대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다. 유아의 경우 비용은 1분

위 대비 10분위가 1.9배이고, 비용이 소득 10분위와는 정적인 관계이나 소득 대비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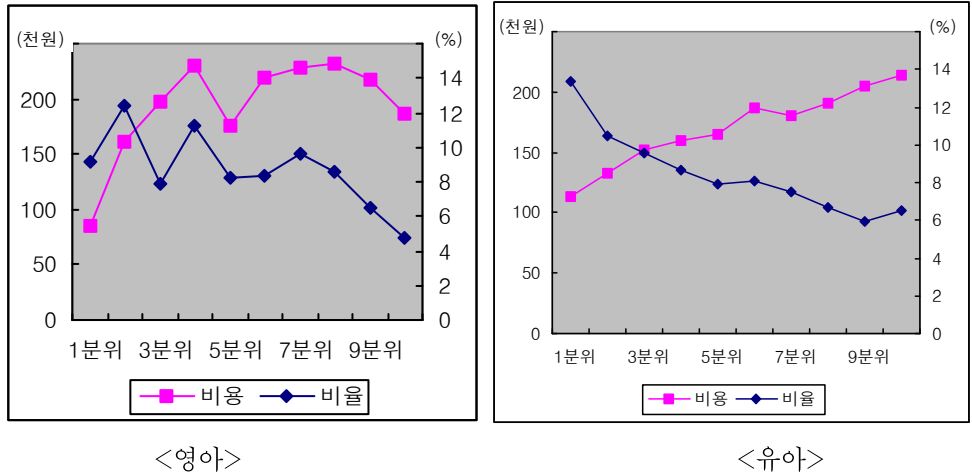
〈표 18〉 소득 10분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수=1,595)			영아(수=140)			유아(수=1,456)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평균	172.2	8.4	10.3	199.0	8.4	10.9	170.5	8.4	9.9
표준편차	78.1	5.4	5.3	81.5	4.7	5.7	78.6	5.4	5.4
1분위	110.0	12.8	11.6	85.4	9.2	7.8	113.9	13.4	12.2
2분위	134.0	10.6	10.8	161.2	12.4	12.2	132.4	10.5	10.7
3분위	154.7	9.5	11.0	198.0	7.9	17.9	151.6	9.6	10.5
4분위	164.0	8.8	10.2	229.2	11.3	13.5	159.9	8.7	10.0
5분위	166.6	7.9	10.0	175.0	8.2	11.1	165.4	7.9	9.9
6분위	189.7	8.1	10.3	219.2	8.3	11.7	187.2	8.1	10.2
7분위	184.1	7.7	9.5	227.6	9.6	10.8	181.0	7.5	9.4
8분위	194.5	6.9	9.4	232.2	8.6	11.8	190.6	6.7	9.2
9분위	206.7	6.0	8.7	216.7	6.5	9.4	205.0	5.9	8.6
10분위	212.5	6.4	8.0	186.8	4.7	6.2	214.3	6.5	8.1
F	26.7**	22.9**	5.7**	6.3**	2.0*	3.5**	23.1**	22.8**	5.8**
10분위/1 분위	1.9	0.5	0.7	2.2	0.5	0.8	1.9	0.5	0.7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 영아와 유아 소득계층별 육아지원기관 비용 및 소득 대비 비율

나. 모 학력별 차이

1) 이용

4개 기관 이용에서의 모 학력별 차이를 보면 보육시설은 대학원 이상이 중학이하에 비하여 이용 비율이 11.7%p가 낮고, 반일제이상학원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과 선교원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학이하 대비 대학원 이상 비율에서 반일제이상학원이 0.3으로 중학이하의 저학력자의 이용이 두드러짐을 나타냈고, 보육시설과 선교원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유치원은 차이가 없었다.

〈표 19〉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중학 이하	29.2	17.9	11.4	1.9	(106)
고등학교	28.9	15.2	9.4	2.3	(1,661)
전문대	25.9	14.5	7.4	1.4	(433)
대학	24.1	20.0	5.3	1.2	(644)
대학원 이상	17.5	17.7	3.2	1.6	(63)
$\chi^2(df=4)$	12.5**	9.3	14.4**	3.5	-
대학원 이상/중학 이하	0.6	1.0	0.3	0.8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20〉 영아와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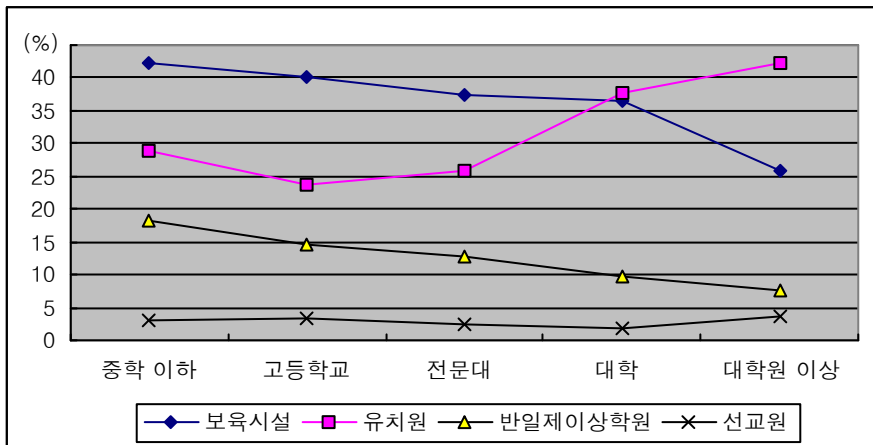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이 상 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8.9	27.2	13.4	2.9	(1,792)
중학 이하	7.5	(40)	42.4	28.8	18.2	3.0	(40)
고등학교	12.0	(602)	40.2	23.8	14.5	3.4	(102)
전문대	11.4	(193)	37.5	25.8	12.9	2.5	(193)
대학	10.0	(301)	36.4	37.6	9.6	1.7	(301)
대학원 이상	11.1	(36)	25.9	42.3	7.7	3.7	(36)
$\chi^2(df=4)$	1.3	-	4.1	28.4**	7.5	2.7	-
대학원 이상/중학 이하	1.5	-	0.6	1.5	0.4	1.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영아 보육시설 이용은 모 학력 중학이하가 타 학력자에 비하여 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대학원이상 이용률이 중학이하의 1.5배 높은 이용률은 보였다. 그러나 전체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이는 중학이하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다닐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수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유아는 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과 반일제이상학원 이용률은 낮고, 유치원은 높아진다. 대학원 이상의 유치원 이용률은 중학이하 학력의 1.5배이다. 유치원 이용률과 모 학력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선교원은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5] 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

2) 비용

기관 이용비용의 모 학력별 차이는 유아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많아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모가 대학원 이상인 유아의 이용비용은 중학이하 학력 이용비용의 1.5배이다.

영아는 비용의 규모는 학력과 일관성 없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나 가구지출 대비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이다.

〈표 21〉 영유아 모 학력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수)	172.2 (1,595)	8.4 (1,592)	10.3 (1,592)	199.0 (140)	8.4 (140)	10.9 (140)	170.5 (1,456)	8.4 (1,446)	9.9 (1,552)
중학 이하	138.6	9.3	10.3	239.3	14.3	15.8	134.3	9.1	10.1
고등학교	163.6	8.5	10.0	173.7	8.5	11.1	162.7	8.5	9.9
전문대	175.6	8.0	9.9	222.3	9.2	12.2	169.7	7.9	9.6
대학	201.5	7.9	9.7	195.4	7.4	9.4	202.2	8.0	9.7
대학원 이상	211.0	9.3	8.8	227.5	5.5	9.0	207.9	10.0	8.7
F	19.2**	1.7	0.6	2.2	1.9	1.5	19.3**	1.7	0.4
대학원 이상/ 중학 이하	1.5	1.0	0.9	1.0	0.4	0.6	1.5	1.1	0.9

주: ** p<.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다. 모 직종별 차이

1) 이용

기관별로 모 취업여부 및 직종에 따라서 비용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육 시설은 취업모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는데, 모가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이용비율이 52.1%로 가장 높고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비율이 낮다. 유치원은 취업중인 모의 이용률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여부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취업모 직종에 따른 차이는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이 1.7로 차이를 나타냈다. 반일제이상학원은 모가 생산노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용률이 높고, 관리전문직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표 22 참조).

이러한 경향을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보면 유아에게서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은 관리전문직은 비율이 낮고 서비스판매 및 생산노무직에서 이용비율이 높다. 유아는 보육시설 이용에서는 영아와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원은 취업모 직종에 따른 차이는 생산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이 2.5배로 직종간의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2〉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수)
전체	27.9	16.5	8.2	1.9	(2,963)
관리전문직	33.8	19.5	1.5	1.9	(263)
사무직	45.9	12.2	7.1	-	(196)
서비스판매	43.4	17.5	10.1	4.7	(366)
생산노무직	52.1	11.7	18.4	0.6	(163)
무직(주부)	19.9	16.5	7.9	1.7	(1,919)
$\chi^2(d=4)$	189.6**	7.1	40.6**	na	-
관리전문직/ 생산노무직	0.6	1.7	0.1	3.2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표 23〉 영아와 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수)
전체	11.2	(1,172)	38.9	27.2	13.4	2.9	(1,792)
관리전문직	15.3	(118)	49.3	35.4	2.8	2.1	(118)
사무직	26.0	(77)	58.8	20.2	11.8	-	(76)
서비스판매	36.9	(84)	45.6	22.3	13.1	6.0	(84)
생산노무직	34.6	(26)	55.5	13.9	20.4	0.7	(26)
무직(주부)	6.0	(865)	31.3	28.9	14.1	2.8	(865)
$\chi^2(d=4)$	113.7**	-	73.0**	27.4**	20.7**	na	-
관리전문직 / 생 산노무직	0.4	-	0.9	2.5	0.1	3.0	-

주: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2) 비용

4종류의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모 취업특성별로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아나 유아 모두 생산노무직의 이용비용이 가장 낮다. 관리전문직의 비용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전문직 비용을 생산노무직과 비교하면 대체로 1.2~1.3배 정도이다.

<표 24> 영유아 모 직업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및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비용	소득대 비비율	지출대 비비율
전체 (수)	172.2 (1,595)	8.4 (1,592)	10.3 (1,592)	199.0 (140)	8.4 (140)	10.9 (140)	170.5 (1,456)	8.4 (1,446)	9.9 (1,552)
관리전문직	195.9	7.8	8.5	203.1	6.7	8.5	194.8	7.9	8.5
사무직	192.8	7.7	9.8	224.2	9.0	12.4	186.8	7.4	9.3
서비스판매	179.7	7.7	9.8	221.4	7.9	12.6	174.1	7.7	9.5
생산노무직	152.1	8.5	9.8	166.2	9.8	11.1	150.9	8.3	9.7
무직(주부)	167.2	8.8	10.2	159.9	8.8	10.2	167.8	8.8	10.2
F	9.7	3.5	3.0	4.7	3.0	2.2	6.0	3.3	3.3
관리전문직/생 산노무직	1.3	0.9	0.9	1.2	0.7	0.8	1.3	1.0	0.9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4. 제 변수들이 개별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개별 독립변수들이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분위, 모의 학력, 지역 변수를 대상으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과 특기학원 등 사교육으로 하였고 선교원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다분류 독립변수는 개별 분석에서 사용한 소득 10분위, 모의 학력,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때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과 모의 취업변수를 분석에 변수(Co-Variate)로 포함하였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와 <표 25>와 같다.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을 유아로 한정할

경우는 전체 영유아 대상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와 지역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으나, 영아로 한정할 경우 연령과 모 취업 이외에 소득분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과 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별로 방향성을 보면 모 취업, 소득 10분위, 지역은 모두 영유아,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즉, 모가 취업할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변수는 영아와 유아의 방향성이 다르다. 즉 영아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지만 유아가 되면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5〉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영유아		영아		유아	
	B(se)	Exp(β)	B(se)	Exp(β)	B(se)	Exp(β)
(상수)	-1.71(0.31)**		-4.59(0.89)**		1.28(0.41)**	
연령(연속변수)	0.32(0.03)**	1.38	1.58(0.20)**	4.84	-0.25(0.05)**	0.78
모취업(1= 취업)	1.12(0.10)**	3.08	1.85(0.25)**	6.34	0.92(0.11)**	2.50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39(0.21)*	0.68	-1.07(0.51)**	0.34	-0.23(0.25)	0.79
3분위	-0.49(0.22)*	0.61	-0.93(0.50)**	0.39	-0.42(0.26)	0.66
4분위	-0.69(0.22)**	0.50	-1.51(0.53)**	0.22	-0.60(0.26)*	0.55
5분위	-0.61(0.21)**	0.54	-0.39(0.45)	0.68	-0.74(0.25)**	0.48
6분위	-0.74(0.21)**	0.48	-1.24(0.48)**	0.29	-0.75(0.25)**	0.47
7분위	-0.81(0.23)**	0.44	-1.56(0.55)**	0.21	-0.74(0.26)**	0.48
8분위	-0.78(0.22)**	0.46	-1.37(0.53)**	0.25	-0.77(0.26)**	0.46
9분위	-0.61(0.23)**	0.54	-0.71(0.50)	0.49	-0.68(0.27)**	0.51
10분위	-0.97(0.25)**	0.38	-2.00(0.59)**	0.14	-0.90(0.29)**	0.41
모학력(준거: 중학이하)		.				
고등학교	0.37(0.26)	1.45	0.42(0.80)	1.52	0.24(0.29)	1.27
전문대	0.24(0.28)	1.28	0.46(0.83)	1.58	0.09(0.32)	1.09
대학	0.25(0.28)	1.28	0.37(0.82)	1.45	0.18(0.31)	1.20
대학원 이상	-0.11(0.43)	0.89	-0.16(1.02)	0.85	-0.20(0.53)	0.82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55(0.11)**	0.58	0.38(0.29)	1.47	-0.81(0.13)**	0.45
중소도시	-0.57(0.11)**	0.57	-0.06(0.30)	0.94	-0.70(0.13)**	0.50
-2 Log Likelihood	2,244.6		367.0		1,182.8	
$\chi^2(df=17)$	1,829.3**		206.8**		164.4**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표 26>에서 유아의 유치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수준 중 10분위의 1분위 대비 β 값은 4.15이다. 그러나 모의 학력은 보육시설 이용과 같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 보육시설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연령, 모취업, 소득수준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모가 취업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 아동은 유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26>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에 대한 다범주 회귀분석

구분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B(se)	Exp(β)	B(se)	Exp(β)
(상수)	-5.83(0.53)**		-3.38(0.60)**	
연령(연속변수)	0.90(0.06)**	2.47	0.22(0.07)**	1.25
모취업(0, 1=취업)	-0.58(0.13)**	0.56	-0.24(0.16)	0.79
10분위(준거: 1분위)				
2분위	0.12(0.36)	1.13	0.37(0.41)	1.45
3분위	0.81(0.35)*	2.26	0.24(0.42)	1.27
4분위	1.19(0.34)**	3.29	0.40(0.42)	1.50
5분위	1.01(0.34)**	2.73	0.64(0.40)	1.89
6분위	1.19(0.34)**	3.28	0.48(0.40)	1.61
7분위	1.16(0.35)**	3.18	0.21(0.43)	1.24
8분위	1.21(0.34)**	3.35	0.50(0.41)	1.64
9분위	1.26(0.35)**	3.53	0.67(0.41)	1.96
10분위	1.42(0.36)**	4.15	0.57(0.44)	1.77
모 학력(준거: 중학이하)				
고등학교	-0.39(0.34)	0.68	-0.58(0.38)	0.56
전문대	-0.14(0.37)	0.87	-0.73(0.43)	0.48
대학	0.15(0.36)	1.16	-1.15(0.43)	0.32
대학원 이상	0.63(0.55)	1.87	-2.23(1.10)	0.11
지역(준거: 읍·면)				
대도시	0.20(0.16)	1.22	0.95(0.23)**	2.58
중소도시	0.28(0.16)*	1.33	1.04(0.22)**	2.82
-2 Log Likelihood	984.6		766.3	
$\chi^2(df=17)$	341.3**		711.9**	

주: * $p < .05$, ** $p < .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원자료.

반일제 이상 미술학원 이용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도시에 거주할수록 이용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소득수준 역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지만 유의하지는 않으며, 모의 학력은 여기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회귀분석에서 모 학력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모 학력변수와 소득변수와의 상관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IV. 결론 및 논의

아동과 가구 단위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총 비용의 제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이용과 비용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아동수, 모의 취업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용에서는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별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 부모의 제 특성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따르는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과 관련하여,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별로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에서 모두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10분위 이용률을 1분위 이용률과 대비하면 특기보습학원은 5.8배, 방문지도·학습지는 3배, 개인양육지원은 약 2배이다.

현재 제도권 육아지원서비스로 중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자도 부모 특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유치원과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소득분위별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으나, 1분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모가 취업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높아진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반대로 1, 2분위에 비하여

9, 10분위의 이용률이 13%p 높은데,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읍·면에 비하여 중소도시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반일제이상미술학원 이용에서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자녀가 이용률이 높은 것은 유치원과 동일한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이고, 읍·면에 비하여 도시가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이용에서는 소득계층별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내용과 질적 측면도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육시설은 취업모가 선호하여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비용에서도 부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도 많아진다. 비용 지불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육아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가 전체 2.8배, 영아 4.6배, 유아 2.6배로 영아의 비용 격차가 크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14.7%로 가장 높고, 10분위는 7.2%로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득 10분위 변수의 소요 비용에 대한 설명력은 15.3%이다. 즉, 이용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용에 따른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 기회 보장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소득은 가구당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4.5%의 설명력을 가진다.

가구 단위에서는 영유아수와 취업모 여부가 소득 다음으로 설명력을 추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비용 과부담 가구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맞지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동시 이용이 아니라 출생순위만으로 두번째 출산아 이상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취업모를 위한 추가 지원도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차등보육료 비율의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등 적용, 소득공제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가 있다.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서, 유아 사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기교육 등 부모의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학원 이용률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5.8배이고 학습지도 이용이 가장 많은 9분위는 1분위 대비 3.5배이다. 특기학원 이용 시 비용은 1분위 대비 10분위가 2.0배이다.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다.

정부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을 크게 늘리며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적어도 공적영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상의 격차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까지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중산층까지 지원하고 기본보조를 확대하여 민간시설에도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시설 및 부모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부담 비용 없이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모두 달성되면 정부가 총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의 거의 70%를 부담하고 부모는 비용의 30%만을 부담하면서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GDP 대비 보육비용 예산의 규모는 0.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부담 비율도 영아는 특정 계층은 최대 8.4%까지 부담하지만 유아는 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몇몇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특별활동 등 사교육 부분의 격차는 상당부분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더욱이 교육비에 이어서 보육료 가 자율화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질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시설이 일정부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김안나(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정·김미숙(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실태 및 요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유희정·김정래·김안나·박은실(2001).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 선정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1997).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계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V). 제5차 대통령보고서.
-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2004). 제1차 육아지원방안.
(2005). 제2차 육아지원방안.
- 고령사회저출산대책본부(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새로마지플랜 2010.
- 박기백·김현숙·김우철 외(2004).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 서문희(2001).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 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김유경 외(2004).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김태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행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1997).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이혜영·류방란·장명립 외(2002). 2005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소요비용 차이에 관한 연구 95

임재택·김은주(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부산). 한국교육개발원.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 논문접수 2007년 8월 28일 / 수정본 접수 12월 3일 / 게재 승인 12월 14일
- 교신저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suhmh@kicce.re.kr

ABSTRACT

A study on effectiveness of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to the use and expenditure of ECEC

Moon Hee Suh

This study analysis the differences among socio-economic status in the use of various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and cost payed for these services. For the analysis, raw materials of 2004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child rearing was partly used. The analysis found that enrollment and cos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are relatively high among higher income brackets. Household income brackets could explained 15% of the cost payed by the parents in ECEC. Among low income groups the cost is low, but rate to household income is high relatively, which indicated the necessity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ubsidies for low income groups.

Key Words: child care, early child education, use rate, expenditure.